與野 '국감시기 추석전후 신경전' 속내는

'바다' 잠재우기 vs '바다' 끌고가기

여 "야 추석이후 주장은 '바다 파문' 지속 꼼수"
야 "추석전 실시는 적당히 넘어가자는 수작"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추석연휴 이전에 국정감사를 끝내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추석연휴 이후에 하자며 맞서고 있다.

우리당은 '원칙론'을 내세우며 9월 국감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감 시기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게 돼있다는 것이다. 올해 9월 10일은 일요일인 만큼 11일부터 20일간 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9월에 국감을 할 경우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다며 '현실론'을 내세우고 있다.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 이후 각 상임위가 피감기관 업무보고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8월 임시국회를 여느라 국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석 전 국감을 실시할 경우 '부실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9월에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비롯해 5명의 예비 헌법재판관 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교육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릴 것으로 예상돼 인사청문특위나 법사.교육위원들은 국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그 이유중 하나.

이에 대해 우리당은 국감시기를 10월로 미루려는 한나라당의 '진정한' 의도는 현재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바다이야기' 파문을 지속시켜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서는 이를 내년 대선정국으로까지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국감 시기를 뒤로 미루기 위한 이유로 여러가지를 들고 있지만 속마음은 '바다이야기 정국'을 오래 끌려는 의도가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의사일정에 관한 법을 지켜야 할 것 아니냐"며 "국감을 통해 현안을 먼저 논의한 뒤 대정부 질문과 대표연설을 하는 게 올바른 정기국회 운영 방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지난 10년간 추석 전에 국감을 실시한 경우는 단 한번 뿐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은 적당히 국감을 넘어가고 싶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양당이 국감 일정을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감자료요구 자제해달라" 공무원 노조 국회에 요청

정부부처 공무원 노조가 여야 의원들에게 개별적인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부 공무원노조는 최근 각 의원실에 '국정감사 자료요구 개선 요청' 제하의 공문을 조호동 위원장 명의로 발송, 국감 자료 요구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지적했다.

공문은 "'국정감사 및 조사 관련 법'은 국감시 자료 요구를 위원회나 소위원회, 국정감사반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각 의원이 개별적으로 감사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원 직인조차 누락된 요구서로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중복 요구, 과다 요구 등 불합리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공작새도 발 밑 살필때 깃털 접는법 검찰,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정상명 총장, 법조비리 자성…일선 검사에 e-메일 당부

정상명 검찰총장이 2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검사협회(IAP) 총회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전국 일선 검사들에게 법조비리 파문 등과 관련해 겸허한 자세로 자성할 것을 당부하는 e-메일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정 총장은 24일 일선 검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공작새도 자기 발 밑을 돌아볼 때는 깃털을 접는 법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매사에 겸허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재삼 당부하고 싶다"며 몸가짐을 더욱 조심하도록 강조했다.

정 총장은 "검찰의 사회적 역할이 중대하고 권위가 높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자중자애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우리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해 정 총장은 e-메일 서두에서 "최근 발생한 법조브로커 사건은 청렴하고 강직한 검찰을 염원하는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아껴주시는 국민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뿐이다"며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총장은 법조 브로커 대책 수립을 지시하면서 "법조브로커는 그릇된 접대문화의 토양 위에서 자라나고 법조인들의 허술한 마음의 구석을 파고든다. 아무리 사적 영역이라도 무절제한 대인관계는 개인과 조직을 곤경에 빠뜨리고, 종국에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부적절한 처신을 철저히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감찰 및 징계 권한을 강화하고 대검 감찰부장 직위를 개방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향후 비리 연루자에겐 더 이상 온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4일 출국한 정총장은 IAP총회에 참석한 뒤 다음달 2일 귀국한다.

/연합뉴스

"동맹국 中-러 신뢰 못 할 나라"

김정일 위원장, 재외공관장 회의통해 비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를 통해 전통적인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핵개발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어려움을 자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26일 전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18~22일 긴급 소집한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동맹국들에 대해 이같이 회의론을 드러낸 것은 같은달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김 위원장의 이러한 공개적인 비판은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의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김 위원장이 회의에서 "모든 도전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참석자들에게 북한 외무부가 유엔 결의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결의를 완전히 거부하면서 자위적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성명서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다른 고위 관리들을 통해 자신의 비판을 전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뉴욕교도=연합뉴스

'아프리카 수면병'의 생물학적 베일을 벗긴 미국 존스홉킨스의대 기초생물의과학연구소 이소희 박사와 셀(Cell)지 커버 사진. /연합뉴스

아프리카 수면病의 비밀 한국인 과학자가 풀었다

이소희 박사 '셀'지 게재

흡혈 파리에 의해 감염되는 치명적인 '아프리카 수면병'의 생물학적 베일이 재미 한인과학자가 주도한 연구팀에 의해 벗겨졌다.

미국 존스홉킨스의대 기초생물의과학연구소 폴 잉글룬드 교수팀의 이소희(여·29) 박사는 수면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이 '지방산(fatty acids)'을 만드는 새로운 생물화학적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박사를 제1저자로 한 이번 논문은 저명과학저널 셀(Cell)지 25일자에 실렸다. 특히 관련 사진은 셀지 표지를 장식했다.

이번 논문에 따르면 흡혈파리가 옮기는 기생충 '트리파노소마'는 세포와 세포기관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엘론게이즈(elongases)' 라는 효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엘론게이즈를 타깃으로 한 약을 개발할 경우 아프리카 수면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신약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국적의 유학생인 이 박사는 2년전 고인이 된 이상선 전 한국교원대 생물학과 교수의 딸로,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 아이오와대학(생화학)을 졸업한 뒤 존스홉킨스의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아프리카 수면병은 '체체파리' 등의 흡혈파리가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들일 때 편모충인 '트리파노소마(trypanosome)'가 몸속으로 들어와 감염되는 질환으로 세계적으로 연간 50만명이 감염되고 5만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연합뉴스

日, 대북 제재조치 가시화

재일조선인 재입국 절차 강화

지난달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선 일본 내 제재조치가 가시화하고 있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미사일이 발사된 지난달 5일 이후 북한 국적 재일조선인이 해외여행에서 귀국하기 위해 사전에 밟아야 하는 재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장은 최근 "당분간 재일조선인의 재입국 허가신청이 있을 때는 외유 목적과 행선지, 일정 등을 상세히 파악한 뒤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지방 입국관리국은 해외여행에 나서는 재일조선인에게 '여행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매번 재입국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는 '유효기간' 내 몇차례도 입출국이 가능했다. /도쿄=연합뉴스

"한·중과 관계 개선 노력" 아베 日관방장관 밝혀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26일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확실히 노력하겠다"며 "한국과 중국도 한 발 앞으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아베 장관은 다니가키 사타카즈(谷垣禎一) 재무상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외상 등 총리 후보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도야마(富山)에서 열린 자민당 권역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47개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이라는 전국 행정단위를 9~13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이른바 '도주제(道州制)'를 차기 정권에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도쿄=연합뉴스